

CEO Movement

지금 이 순간도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IT 기술과 접목돼 있고, 미래사회에서도 그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. 그렇게 된다면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아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? 다름 아닌 정보보호일 것이다. 현법포럼이 황중연 원장을 초청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.

|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|

• • 정보보호와 헌법의 관계 : 헌법포럼 특별강연

최근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KISA 황중연 원장이 지난 4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'헌법 포럼'에서 '정보화 사회 그리고 헌법'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. 정보보호와 법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연결고리. 황 원장은 국내 주요 법조인 및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, 그리고 그에 따른 역기능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, 정보보호 대책방향 등을 소개했다.



• • 디지털 사회와 여성 : 서울여대 특별강연

지난 4월 7일 KISA 황중연 원장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'디지털 사회와 정보보호'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. 이번 강연에서 황 원장은 디지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, 인터넷 윤리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서울여대 학생들은 자신들이 손수 준비한 캐리커처와 꽃다발로 화답했다.



• • MS 차세대기술센터, KISA와 함께 합니다 : 연구 및 정책분야 긴밀한 협조

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기술센터(MS Institute for Advanced Technology) 소장 짐 사이먼(Jim Simon)이 지난 4월 28일 KISA를 방문해 황중연 원장과 정보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국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. Jim Simon 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 KISA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
• •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, KISA 방문 : 각종 침해사고에 철저한 대비 당부

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이 지난 5월 7일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24시간 국내 인터넷 이상 유무 확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 이 자리에서 이경자 상임위원은 2009년 들어 해킹을 야기하는 악성코드 증가현황을 보고받고,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